‘젊은 피’ 수혈… 세대교체 큰 틀 짜는 홍명보

조만간 유럽·중동 출장길 올라
유럽서 활약 이영준 집중 체크
중동리그 원두재 발탁 저울질

이영준이 4월1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등진 채 볼을 지켜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2026 북중미월드컵 본선행의 최대 고비였던 10월 3차 예선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유럽·중동 출장길에 오른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 감독은 유럽,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체크하기 위해 조만간 해외 출장을 떠난다.

일정은 유동적이다. 1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홍 감독에게는 대표팀 감독 선임 뒤 두 번째 유럽 출장이다.

그는 7월 감독으로 선임된 뒤 외국인 코치 선임과 손흥민(토트넘),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대표팀의 주력인 유럽파 선수들 면담을 위해 열흘간의 출장길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는 업무의 초점이 좀 다르다. 홍 감독은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닌 어린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지켜보고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홍 감독이 이미 파악이 끝난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닌 아직 선발하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유럽뿐 아니라 중동도 방문한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리그에서 맹활약하는 스물한 살의 파릇파릇한 스트라이커 이영준의 기량을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여름 스위스 그라스호퍼로 이적한 이영준은 일찌감치 원톱 주전을 꿰차더니 정규리그 2골 1도움을 몰아쳤다.

이영준은 10월 A매치를 앞두고도 대표팀에 소집될 선수로 거론된 바 있으나 오현규(헹크),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 등에 밀리며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영준이 만약 홍 감독이 보는 앞에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11월 월드컵 예선 때는 첫 태극마크의 영광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영준이 홍 감독으로부터 눈도장을 받는 건, 대표팀의 공격진 세대교체가 가속화된다는 의미도 있다.

아직 홍 감독의 부름을 받지 않은 선수 중 중동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로는 아랍에미리트 코르파칸에서 뛰는 원두재가 대표적이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원두재는 2022시즌 울산 HD에서 홍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인연이 있다.

해당 시즌 울산 우승에 기여한 뒤 김천 상무에 입대했으며, 올해 제대한 뒤에는 울산에 잠시 몸담다 지난달 코르파칸으로 이적했다. 원두재 역시 코르파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안정 지향의 4-2-3-1 전술을 선호하는 홍명보 감독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꼽힌다.

10월 A매치 두 경기를 통해 박용우(알아인)가 이 자리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으나 선수 풀을 넓힐 필요도 있다.

홍명보호는 10월 A매치 기간 치러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에서 각각 요르단(2-0)과 이라크(3-2)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다.

9월에 치른 오만과의 원정 경기(3-1) 승리를 더하면 3연승을 달린 홍명보호다.

3승 1무로 승점 10을 쌓은 한국은 2위 그룹을 형성한 이라크, 요르단(이상 승점 7)과 격차를 승점 3으로 벌리며 B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부상 회복 손흥민, 내일 웨스트햄전 출격

EPL 8라운드 홈 경기 출전 예상
SNS로 “곧 돌아온다” 복귀 알려

푹 쉬면서 다친 부위를 회복한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사진)이 주말부터 그라운드로 돌아와 홈팬들을 기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19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과 홍명보호 국가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은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지난달 27일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 실전에 나서지 못했다.

10월 A매치 기간에도 홍명보호에 합류하지 못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4차전을 치른 대표팀 동료들을 런던에 머물며 응원하기만 했다.

A매치 휴식기에 앞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리그 경기, 페렌츠바로시와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모두 결장한 손흥민은 이제 출격할 준비를 마친 듯하다.

손흥민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돌아온다’(Back soon)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실제로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을 통해 복귀할 것이라 예상한다.

영국 풋볼런던은 지난 16일 손흥민이 곧 팀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 예상하며 복귀전으로 웨스트햄전을 꼽았다. 이브닝스탠더드도 손흥민이 회복에 전념하려 대표팀 일정도 소화하지 않았다면서 웨스트햄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을 시작으로 25일 AZ 알크마르(네덜란드)와 유로파리그 경기, 27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리그 경기, 31일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컵 16강, 다음달 3일 애스턴 빌라와 리그 안방 경기를 차례로 치른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나는 직후부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의 복귀로 공격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승에 이바지한 주축 선수들도 유럽으로 돌아가 소속팀에 힘을 보탠다. 홍명보호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준 김민재가 복귀한 바이에른 뮌헨은 20일 오전 1시30분 슈투트가르트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중·후반 들어 실수가 잦아 후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리그 6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는 등 뮌헨 붙박이 센터백으로서 입지를 되찾은 상태다.

“올 프로농구 MVP 보나마나 김단비”

27일 개막하는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아산 우리은행 김단비(사진)가 가장 유력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7일 팬과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기대되는 정규리그 MVP로는 김단비가 팬의 32.3%, 선수단 35.9%, 미디어 41.3%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수상 후보로 지목됐다. 가장 기대되는 이적 선수로는 심성영(우리은행), 진안(하나은행), 김소니아(BNK)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승팀, 4강 플레이오프 후보 등 주요 설문 결과는 21일 열리는 개막 미디어데이 때 공개된다.